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15

##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 사전 동의

## 사례연구 12: 집단 상황에서 자발적인 사전 동의 얻기

### 연구배경:

해당 박사학위 연구 설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일랜드에서 보호자 없이 망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다루기 위해 13-18세의 비슷한 청소년들의 개별 인터뷰를 넣는 것이었다. 표본을 위한 연구 기준을 충족시키는 청소년을 모집할 때 염려되는 점은 이들이 사전에 겪은 경험들로 인해 해당 연구에 대한 의심, 회의 등의 감정들이 생겨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상처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다. 다른 청소년과 해당 그룹이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의 의심과 회의는,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비슷한 청소년 연령대, 특히 여러 이유로 취약하다고 여기는 잠재적 참가자들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그룹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연구 초기부터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사전 경험으로 인해 다른 이들, 특히 권력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을 것인가 였다(Ní Raghallaigh & Gilligan, 2010). 연구는 아일랜드에 도착한 이후의 경험에 초점을 뒀지만, 훨씬 더 민감한 문제는 많은 청소년이 불확실한 이민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더욱 조심스러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소위 권력자들이 속한 부처에서 제안하는 '방안'들과 직면할 때 무력해질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한 번의 인터뷰로 청소년들이 맞닥뜨린 경험의 복잡성과 범위를 공정하게 다루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환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결국 인터뷰 시작 전에 독립된 호스텔에서 청소년들을 목격 해 참가자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호스텔에 청소년들을 배정하는 관계자에게 참여 관찰을 하기 위한 허락을 받았다.

### 윤리적 문제:

연구의 주요한 윤리적 문제는 자발적인 동의를 참가자로부터 얻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두드러지는데, 연구자를 권위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Mahon 외, 1996). 청소년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들은 불안정한 이민 상태인데다 그밖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Hopkins, 2008년 참고). 게다가 참여 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더 복잡하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호스텔에 머무르면서 연구자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연구자는 참가에 대한 흥미가 강한 사람이 일부 있거나, 대다수가 흥미를 보이고 한 두 명이 프로젝트 전체를 거부하더라도 연구 참여 집단으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연구팀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했다. 물론 동행자가 없는 소수자들의 불참 권리도 중요했다. 그러나 여타 청소년들은 연구에 대해 열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거부할 권리만큼, 이들의 연구 참여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 선택방법:

만일 대다수가 연구에 대해 호의적이라면 이를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시켜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사전 동의는 두 가지 문제로 이어졌다. 두 잠재적 집단인 '동의자'와 '비동의자' 간의 권리에 대한 균형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연구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한 부분은 호스텔에서의 연구자 참가 여부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연구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실제 참가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팀은 어떤 청소년은 호스텔에 연구자(Muireann)가 존재한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에 동의한다고 해서 두 번째 부분도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부터 나온 표 1(Ní Raghallaigh, 2006)은 연구자가 동의를 구했을 때 청소년들의 가능한 답변의 조합을 나타낸다.

표 1: 연구 참여와 호스텔에서의 연구자 참여에 대해 동의를 구했을 때 잠재적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답변들

		연구 참여 의사	
		아니오	예
연구자의 관찰에 관한 의사	아니오	“저는 Muireann이 호스텔에 있는 것도, 그녀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Muireann이 저를 인터뷰하는 것은 좋지만, 호스텔에 드나드는 것은 그다지 바라지 않습니다.”
	예	“Muireann이 호스텔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녀가 저로부터 혹은 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Muireann이 우리가 묵고 있는 호스텔에 와서 우리의 삶에 대해 탐구한다면 매우 기쁩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저를 인터뷰해도 좋습니다.”

일단, 모든 청소년으로부터 연구자가 호스텔에 있어도 된다는 구두 동의를 얻었다. 대부분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했다. 1 대 1로 면담하면서 동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연구자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과 연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한 참가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수집되고 포함된다고 했다. 또 활발한 관찰에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현장 기록은 적지 않기로 약속했다. 현장 연구를 하는 동안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동의를 구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연구자의 존재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새 청소년이 호스텔에 왔을 때이다. 연구자 관찰에만 동의한 몇몇 청소년들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연구자와의 관계가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연구자 관찰과 연구 참여에 모두 동의한 다른 청소년들은 후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다고 했으나 Muireann이 호스텔에 머무르는 것은 괜찮다고 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집단 연구를 할 때 연구팀이 전체 집단으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무시되는 것일까? 연구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답은 ‘그렇다’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이 연구에서의 동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 즉 청소년들이 현재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 것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었다. 그저 호스텔에 가서 단번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먼저 동의를 얻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현장 연구를 시작하기 전, 사전에 청소년들과 몇 번의 회의를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가졌다. 그리고 그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호스텔 직원이나 연구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익명 댓글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동의를 얻는 데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잠재적 참가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데 매우 중요했으므로, 쫓기듯 혹은 건성으로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 연구팀이 계속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드는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면, 취약한 청소년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 연구의 참여 관찰을 시행하는 동기 중 하나는 청소년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이었다. 연구 과정에서 관계는 형성됐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구의 종결과 함께 그 관계도 끝나버렸다. 이것은 과연 공정한가?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려 정서적으로 외롭고 취약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다.

**참고문헌**

Hopkins, P. (2008). Ethical issues in research with unaccompanied asylum-seeking children, *Children's Geographies*, 6 (1), 37 - 48.

Mahon, A., Glendinning, C., Clarke, K., & Craig, G. (1996). Researching children: methods and ethics. *Children & Society*, 10 (2), 145-154.

Ní Raghallaigh, M. (2006). *Negotiating changed contexts and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 experiences of unaccompanied minors living in Ireland*. Unpublished Ph.D. thesis submitted to the School of Social Work and Social Policy, Trinity College Dublin.

Ní Raghallaigh, M., & Gilligan, R. (2010). Active survival in the lives of unaccompanied minors: coping strategies, resilience and the relevance of religion. *Child & Family Social Work*, 15, 226-237.

**자료제공:** Dr Muireann Ní Raghallaigh,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University College Dublin, Ireland and Professor Robbie Gilligan, School of Social Work and Social Policy,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The research was part of a Ph.D. study which was funded jointly by the National Children's Office, Dublin, and by the School of Social Work and Social Policy and the Children's Research Centre, Trinity College Dublin.

**사례연구 13: 사진을 이용한 동의: 시각적 동의서에 사진 사용하기**

**연구배경:**

시에라리온에 위치한 티와이 섬의 야생 동물 보호 지역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호 지역이고, 환경 NGO인 EFA(Environmental Foundation for Africa; 아프리카를 위한 환경재단)에 의해 관리되는 생태 관광지다. 연구자는 2008-2009년까지 티와이 지역 공동체에서 EFA와 협력해 석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 그리고 우선사항들을 나타내줄 수 있는 사진을 찍도록 하는 시각적 참여 도구인 포토보이스를 이용해 야생 동물 보호 지역 개발과 보호에 대한 세대 간 대화를 촉진시켰다.

**윤리적 문제:**

연구자는 대학의 윤리 원서를 준비하면서 접근이 용이한 형식의 동의서를 개발해야 했다. 시에라리온의 시골은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서면으로 된 동의서는 부적합했다. 구술 동의서도 고려했으나 당시 연구가 진행될 지역 공동체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녹음기 역시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참가자들의 구술 동의를 녹음하는 것이 어려웠다.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 만질 수 있으며, 다양한 식자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동의 도구가 필요했다.

참가자들은 연구팀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들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연구팀의 계약 사본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동의서는 연구자 자신은 물론이고, NGO 관계자 그리고 연구 참가자들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다. 이 동의서는 참가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가 미치는 영향, 연구 과정에서 문서의 역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도와줬고, 연구자로서의 의무감을 지키도록 해줬다.

**선택방법:**

연구자는 포토보이스를 이용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동의서에 사진을 넣는 것이 동의 과정에 적합한 접근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용해 대화하는 도구로 생각했다. 연구자에게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 특수 아동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이 연구에서 이미지는 종종 수업을 가르치는 도구이거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교내활동의 시각적 단서로, 그리고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를 위한 구술 동의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진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 생각, 정보를 면밀히 분석했다. 초안 작성은 매우 반복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었다. 표현될 수 있는 가능한 사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동의서 스크립트의 구조가 바뀌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